

# 글의 생명을 지키는 길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 · 사회학

책을 쉽게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쉽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대인은 자기 표현의 욕구와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민주화는 글쓰기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곡예와 같은 현대의 삶을 살아내면서 쌓이는 이야기들이 저마다 너무나 많은지라, “내 과거를 말하면 책 열권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너도 나도 할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서 일생의 소중한 체험들을 단돈 몇 천원의 책으로 사버리는 것이 때로는 비양심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반면에 글쓰기가 글쓰기 자체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출세의 수단으로 글쓰기에 매달리는 사람, 맹목적으로 자기를 알리고 싶은 욕망에서 글쓰기를 이용하는 사람, 일종의 해게모니 다툼의 수단으로 글쓰기에 편승하는 사람, 고민도 하지 않은 생각들을 무턱대고 내뱉는 재미로 글쓰는 사람, 지적 사기를 무릅쓰면서까지 지식인의 흥내를 내기 위해 글쓰기에 연연해하는 사람, 지식인의 위상을 남용하고 오만을 과시하는 타성에 길들여진 글쟁이, 무지의 용감성을 발휘하는 배짱이 있는 덕분에 글쓰기에 무턱대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자기정체성을 남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서 글쓰기에 유일한 희망을 거는 사람 등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하나의 글쓰기에는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을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동기들 때문에 우리는 글쓰기의 도구화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이를 문제삼아야 할 이유가 점점 더 불분명해지는 상황에 익숙해져가는 듯하다.

글쓰기가 쉬워지는 반면에 글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자기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성인지도 모른다. 설사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 말을 찾아내는 데에 열중하는 글읽기가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다. 어차피 글이란 읽는 사람에 의해 재창조되어야 하는 열린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러한 글읽기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창조적인 글읽기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신세대로 갈수록 글의 배후에 또는 글과 글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심하게 읽어낼 만한 정열이나 인내를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영상시대의 글읽기는 영상적 이미지로서 호소력을 지닐 경우에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 경우 글읽기는 문화적 소비의 하나가 되기 십상이다. 또한 정보의 흥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에게는 글읽기가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것으로 치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생각이 집중되지 못한 채 스쳐가며 읽혀지는 글들, 수많은 글들 속에서 계속 헷갈리는 글읽기, 글쓰기의 새로운 포장들 속에서 떠밀리고 끌려가는 글읽기, 일회용으로 급조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소모적인 담론의 공해, 베스트셀러의 선전에 유혹당하는 글읽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 글쓰는 사람과 글읽는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인지를 의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글의 생명력 역시 우리 사회에 군림하는 시장의 논리에 방치시켜둘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글은 결국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교류보다는 금전의 교환에 집착하는 도구로 전락될 소지가 많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글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무엇인가? ♦

- |                        |  |
|------------------------|--|
| 기획 취재                  | <b>2 도매상들 잇단 부도사태로 유통대란 우려</b><br>유통구조 재편 불가피 … 도서유통 합리화방안 강구해야                                    |
| 해외 탐방                  | <b>4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을 돌아보고</b> – 이승우  |
| 저자 초대                  | <b>5 『훈+ 국어사전』펴낸 남영신 한국어문연구소장</b>  |
| 출판시평                   | <b>6 팬시옹품 닮은 '작고 가벼운' 책들</b> – 김기태<br><b>7 즐거운 책읽기 방해하는 어린이 독서지도서</b> – 오춘식                        |
| 출판화제                   | <b>8 한국문학의 토양 기름지게 한 근대작가 복원</b><br><b>10 기호와 상징으로 읽는 소비시대의 디자인</b>                                |
|                        | <b>12 전문성 담은 '전문가 소설' 등장</b><br><b>14 실전경험으로 출판이론 세운다</b>  |
| 화제의 신간                 | <b>13 『눈으로 보는 책의 역사』의 세계</b>   |
| 출판계 소모임                | <b>15 출판계 여성참모부대 '한국여성편집자 클럽'</b>  |
| 출판가 화제                 | <b>16 색다른 공간으로 독자만남 이끄는 출판사들</b>   |
| 출판계 소식                 | <b>17 가을철 출판인들 수상소식 풍성·외</b>   |
| 베스트셀러 다시보기             | <b>18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b> – 김정일  |
| 나의 혁문과 책읽기             | <b>20 우리 안에 있는 소리의 세계</b> – 서우석  |
| 독서 파일                  | <b>21 출판동네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b> – 강철주   |
| 해외서점 탐방                | <b>22 소르본 광장의 명문서점 '퓌프'</b> – 최연구  |
| 인터넷 출판항해               | <b>23 〈엠네스티〉〈유네스코〉〈알바니〉사이트</b> – 최성균   |
| 종합서평                   | <b>24 김이태 · 김남일 · 강규의 소설집을 읽고</b> – 문홍술  |
| 서평                     | <b>26 이기동 『신라사회사 연구』</b> – 최광식<br><b>김여수 『언어와 문화』</b> – 김문환  |
|                        | <b>27 남경희 『말의 질서와 국가』</b> – 이진우<br><b>28 기든스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b> – 노진철<br><b>매킨타이어 『덕의 상실』</b> – 황경식 |
|                        | <b>29 정철훈 『엘찐과 21세기 러시아』</b> – 김학준<br><b>박준식 외 『지방자치와 지역발전』</b> – 지병문                              |
| 이 책 그 사람               | <b>30 『새벽 산사에 가보세요』펴낸 미영순씨</b><br><b>『문화재, 아야 우리 문화재』펴낸 박희진씨</b>                                   |
|                        | <b>31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것도 다른강?』</b> 펴낸 안재구씨 딸 소영씨  |
|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  |
| 48 책의 문화유산 ②           |  |